

신입 808명 뽑는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

작년 도입 '임금피크제 효과' 올해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 국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563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지난해 도입한 임금피크제 효과 덕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까지 신입직원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 행정직 347명, 요양직 206명 등 상반기 채용인원 규모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다. 공단은 하반기까지 전체 총 808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300여명 많은 인원으로 공단의 신입사원 선발 규모에서도 역대 최대다.

신입직원 선발을 이차업 크게 늘릴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도입한 임금피크제 덕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서 직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다. 전체 근로자 1만2857명 중 1만1000여명이 노동조합 가입자다.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처럼 강성 노조로 꼽힌다. 임금피크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직원도 많았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며 조직이 커지면서 7400여명이 한꺼번에 입사했다. 조만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958~1962년생 직원 비중이 28%(3518명)에 달한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국 지사와 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다니며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조위원장도 수차례 만나 설득했다. 찬성률 53%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통과됐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까지 1193억80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단 측은 "올해 382명을 포함해 2020년까지 156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국 316개 공공기관 중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사인앤사인 한방화장품

홍삼화장품의 힘... 창업 2년 만에 면세점 입점

백소영 사인앤사인 대표는 2012년 국내 한 대학의 화장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홍삼 추출물이 화장품 원료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라는 물질이 주름개선과 미백, 보습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백 대표는 이 성분으로 시험 삼아 영양크림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얼마 뒤 "어디서 살 수 있느냐"는 전화가 이곳저곳에서 걸려왔다. "기존 한방 화장품보다 낫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는 직접 화장품 제조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미백·주름·아토피 개선 효과 작은양 발효... 대량생산 성공

화장품 개발 참여 계기로 창업 "시장 알자" 직접 '방관' 2년

것이다. 기술을 인정받아 대전 생명공학연구원에 바이오 벤처기업 자격으로 입주했다. 홍삼 추출물만 넣는 게 아니다. 우방자, 산베피, 연교, 감초, 죽엽 등을 보조성분으로 썼다. 이들 재료를 혼합해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등 기초 화장품을 제품으로 내놨다.

지금까지 화장품 원료로 잘 쓰이지 않던 원료다. 홍삼에서 극히 적은 양만 추출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고 대량 생산이 힘들기 때문이다.

백 대표는 소량의 진세노사이드를 발효, 배양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적은 양만 있어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파는 '지인판매'에만 인제까지 매달릴 수는 없었다. 지난해 배우 홍수아, 김혜진과 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비용 부담이 컸지만 제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한화면세점, 동화면세점 등에도 입점했다. 창업한 지 2년도 안돼 올린 성과다.

◆유명 연예인 내세워 마케팅 백 대표는 제품 양산에 들어가기 전 화장품 방문판매를 약 2년간 했다. 소비자들과 시장을 먼저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처음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회사 화장품을 판매했다. 고객이 하나둘 늘자 자신이 제조한 화장품을 내밀었다. 상당수가 기존 화장품 브랜드 대신 백 대표가 제조한 화장품을 선호했다.

◆유명 연예인 내세워 마케팅 백 대표는 제품 양산에 들어가기 전 화장품 방문판매를 약 2년간 했다. 소비자들과 시장을 먼저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처음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회사 화장품을 판매했다. 고객이 하나둘 늘자 자신이 제조한 화장품을 내밀었다. 상당수가 기존 화장품 브랜드 대신 백 대표가 제조한 화장품을 선호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파는 '지인판매'에만 인제까지 매달릴 수는 없었다. 지난해 배우 홍수아, 김혜진과 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비용 부담이 컸지만 제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한화면세점, 동화면세점 등에도 입점했다. 창업한 지 2년도 안돼 올린 성과다.

◆베트남에 4개 매장 개장 준비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해 해외 전시회에 꾸준히 나왔다. 여기에서 만난 바이어를 통해 베트남에 브랜드숍 4곳을 내기로 합의했다. 홍콩 명품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했다. 미국의 한 대형 백화점에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제품 종류도 BB크림과 마스크



백소영 사인앤사인 대표가 홍삼 추출물 화장품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팩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마스크팩 제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명동에 '안테나숍'을 낼 계획도 갖고 있다. 대전=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2016.03.21~04.03 Vol.097

Preparing

GSAT HMAT LG WAY FIT SKCT CAT

주요 그룹 인적성검사 가이드

www.jobjoy.com

대학 구내식당 혼밥몰레이스

꽃농이해기 출판 대학 캠퍼스

문·사·철을 위한 경제·경영·상식

군대라인 VHS 수내리안

NCS 회원 Kotra 취업기

4월, 인·적성 시즌 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 4월 17일 직무적성검사 역사부터 과학까지 다양하게 공부해야 · SK, 4월 24일 인적성검사 5개 직군으로 나눠 직무적성 세밀하게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 4월 10일 인·적성검사 자료 해석 비중 높아, 역사에세이 유지 · CJ, 4월 16일 직무적성검사 청의력문제 다수, 일관성 있는 답변이 합격 좌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 4월 16일 인적성검사 LG Way'형 인재들 모여라 · 2016 상반기 공채 인·적성검사 준비의 숨은 1인칭
---	--	--

가격 4,000원 / 정기구독 80,000원 / 구독문의 02-360-4841 / 광고문의 02-360-4821 / 사업문의 02-360-4831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패셔노믹스 (02)562-1505 △라이젠-트세 클리너 휴믹기 (070)4001-0635 △사인앤사인 (070)4351-4472 △지성엔테크-외부 유리창 밀대청소기 (070)7520-2645

정준 "벤처지원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벤처기업협회장)

내년 일몰 전 법안개정 추진 벤처 해외진출 70% 확대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사진)은 "특정 벤처기업에 혜택을 주는 기존 지원 체계를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위해 벤처기업 특별법을 한시법이 아닌 일반 법률 형태의 상시법으로 바꾸기로 정부 여당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새누리당에 제출했다.

1998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벤처기업 특별법'은 예초 10년 한시법이었으나 2007년 일몰 시한을 앞두고 한 차례 연장됐다. 내년에 또 한 차례의 연장조항 상시법 전환을 놓고 벤처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논의한 끝에 일

반 법률 제정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창업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특별법과 달리 새로 제정할 법안에는 매출 1000억원, 1조원 등 단계별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벤처업계의 화두로 글로벌 진출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인수한 스마트폰 업체 팬택을 예로 들며 "국내에 안주한 게 경쟁력을 잃은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비중을 지금의 약 30%에서 10년 안에 70%로 끌어올리는 게 협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M&A 활성화와 관련, "이세돌 9단과 대결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한 곳은 벤처기업이었고 구글이 이 회사를 인수해 기술을 더 발전시켰다"며 "국내 벤처업계가 알고고와 같은 결실을 내기 위해선 M&A를 활성화하는 토양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씨앗 단계의 벤처기업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사서 싹을 피우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올초부터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상생 M&A 포럼을 시작했는데 수백명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몰려 상황을 이뤘다"며 "과거와 달리 국내에서도 잘나가는 회사를 매물로 내놓는 창업자가 많고 좋은 매물을 사려는 대기업 임원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알톤스포츠, 자전거 신제품 11종 출시

자전거 제조사 알톤스포츠는 로드마스터 브랜드 신제품 11종을 20일 내놨다. 로드마스터는 젊은 층을 겨냥한 로드·하이브리드 자전거 전문 브랜드다. 로드와 하이브리드는 각각 5종, 픽시자전거는 1종이다.

알톤스포츠는 신제품 특징으로 카본과 알루미늄, 하이텐강 등으로 프레임(몸체) 소재를 다변화한 것을 꼽았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에어로 타입의 오버사이즈 튜빙을 적용했다. 핸들과 림에 레드, 민트, 블루, 오렌지 등의 색상을 포인트로 쓰는 등 디자인에도 신경 썼다.

픽시자전거인 '로드마스터 토치카'(사진)는 국내 디자인 공모전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제품이다. 50mm 하이림 휠셋과 고급 타이어로 꼽히는 식슬릭 타이어를 달았다. 픽시자전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캘리퍼 브레이크를 장착했다.

'로드마스터 유콘'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신경 쓴 입문용 로드자전거다. 가격은 100만원대 초중반이지만 가벼운 카본 소재를 썼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아프리카 담은 생활용품 까사미아, 식기류 등

가구업체 까사미아가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생활용품을 선보였다. 서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서부에 있는 말리의 자연을 본따 식기류, 쿠션, 침구 등을 제작했다. 진흙으로 지은 말리의 전통 건물 디자인, 현지인이 즐겨 입는 의상에 쓰인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뉴질랜드 생활용품 브랜드 '시타디자인'의 제품으로 까사미아가 수입해 유통한다. 까사미아는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20~30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